

다산포럼



김재민 철학자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동물의 지각이 의미 있으려면 행동과 관련되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과 무관한 지각은 무의미하다.

몸은 이동하고 있거나 정지해 있다. 즉, 이동하는 몸 (mobile body) 혹은 부동의 몸 (immobile body)이다.

청춘 특독



윤현서 호남대 축구학과 3년

노적성해(露積成海), 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이룬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이다.

우리는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현재 자신이 해온 것들과 능력, 위치 등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기고



전동호 공학박사도로 및 공학기술사

세상은 공정한가? 주관적이다. 수치화할 물리적 법칙이 아직은 없다. 그럼 평등한가? 그렇다.

부가 특정하게 편중되다 보면 중간층 소비 주체가 감소하면서 결국엔 기업이 도산하고 국가 또한 어려워진다.

국가의 정책은 세금으로 충당하지만, 자발적인 기부로도 이루어진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디지털 대전환의 의미

싼 환경을 전제한다. 이 경험에서는 '접촉' 혹은 '직접성'이 중요하다.

둘째로 수용형(receptive) 경험이다. 음악 감상이나 TV 시청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들어온다.

셋째로 원거리 작용은 어떨까? 가정 집안에서 버튼을 눌러 바깥 현관문을 열거나, 스크린과 스피커에 둘러싸여 마우스와 키보드를 움직이며 통해 게임을 하게 된다.

몸을 중심으로 보면 경험은 다른 식으로 구분된다. 작용형 경험은 이동하는 몸의 경험이다.

를 통해 경험한다. 모바일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지하철에 탑승한 경우라면? 몸은 이동하고 있더라도, 경험하는 몸은 부동의 몸이다.

디지털 초연결 사회에서 온라인 경험은 몰입(immersion)을 강화한다. 사이트와 사이트, 페이지와 페이지, 앱과 앱을 오가기 때문에 몰입보다 분산이 일어난다는 이들도 있다.

온라인 경험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바꾸게 된다. 인간은 더 자극적인 경험을 원하게 된다.

근대 이래로 인류가 속도를 추구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는 국면에 다다르자, 인류는 속도 대신 속도감에 빠져들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해야 할 것들이 떠올랐다면 잊기 전에 적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루뭉술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목표한 것들을 반드시 실천하자. 해왔던 일은 더 현명하게 더 똑똑하게 해내고, 해 보지 않은 일은 자신 있게 도전하자.

기회가 왔을 때는 자신이 느끼기에 스스로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100% 갖추지 못한 것 같더라도 우선은 잡아야 한다. 도전해야 한다.

의미 없는 기회는 없다. 무언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과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옮기는 순간, 실행을 끝내고 결과를 맞닥뜨리는 그 찰나도 절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공했다면 무엇이 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분석해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더욱 잘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실패는 과연 실패일까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 실패한 것이지만 내일 성공한다면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社說

낡고 불안한 한빛원전 수명 연장 밀어붙이나

2·3년 뒤엔 설계 수명(40년)이 끝나나 한빛원전 1·2호기 가동이 10년씩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한빛원전 1·2호기의 폐로(廢爐) 시기를 10년씩 늦추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년 전 9차 계획에서 한빛원전 1호기는 오는 2025년, 2호기는 2026년, 3호기는 2034년 각각 폐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노후된 이들 원전에서 최초 가동 이래 1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가 잇따라 안전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정부는 가동 연장 계획 고시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 전남 국립 의대 설립 전기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논의 재개와 맞물려 전남도가 국립 의대 유치 총력전에 나서 주목된다.

전남도는 잇그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숙 전남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이 발표됐다.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위급한 중증 환자들이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 삼급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featuring '無等鼓' and '조폭의 진화'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